

광주FC 정호연, 링가드 대신 손흥민과 대결 펼친다

토트넘, 아시아 투어 시작...27일 일본을 시작으로 31일 한국과 경기 링가드·기성용 부상으로 팀 K리그 합류 불발...정호연·오베르단 발탁

광주FC의 '살림꾼' 정호연이 팀 K리그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와 맞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 토트넘 홋스퍼와의 경기에 나설 팀 K리그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연맹은 팬투표를 통해 베스트 11과 '쿠팡플레이' 1명 등 12명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칭 스태프가 선발한 '픽 텐' 10명을 더해 22명으로 팀 K리그를 구성했다.

팬투표 결과 올 시즌 7골을 터트린 강원의 '무서운 신예' 양민혁이 22세 이상 선수를 대상으로 한 쿠팡영플로 선정됐고, 수원FC에서 전북현대로의 이적을 앞둔 이승우가 4만8086표를 받아 전체 후보 44명 중 팬투표 1위를 기록하는 등 12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부상으로 '픽 일레븐' 명단에 변화가 생겼다.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던 FC서울의 링가드와 기성용이 부상으로 팀 K리그 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팬투표 4위를 기록했던 정호연과 5위 오베르단(포항)이 '픽 일레븐' 멤버로 대체됐다. 정호연은 올 시즌 광주 24경기에 모두

출전해 팀의 기동 역할을 하고 있다. 팀 K리그를 이끌게 된 박태하 감독과 김은중 코치는 픽 일레븐 명단을 바탕으로 '픽 텐'을 결정했다.

두 지도자의 선택을 받은 '픽 텐'은 K리그 포지션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국내의 선수들로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세부 포지션과 팀별 배분을 고려해 결정됐다.

12골로 K리그1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일류첸코(서울), 11골에 기여해 '도움 1위'에 올라있는 안데르손(수원FC)과 함께 팀의 핵심 공격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윤도영(대전), 정재희(포항)가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유나이티드의 중원을 이끌고 있는 '키플레이어' 이탈로는 미드필더로 선발됐다. 수비수는 '픽 일레븐' 투표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박승욱(김천), 요니치(인천)와 함께 강두지(강원), 이명재(울산)가 명단에 포함됐다.

골키퍼는 포항의 선두 질주를 이끌면서 올해 처음 태극마크를 단 황인재(포항)가 선발됐다. 22명으로 구성된 K리그 선수단은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과 맞대결을 갖는다. 팀 K리그 선수단은 경기에 앞서 29·30일에는 'FC세븐일레븐 with K리그 X 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 팬 사인회, K리그 유튜브 라이브, 축구 클리닉 등 행사를 통해 팬들을 만난다.

한편 토트넘은 23일 '아시아 투어'에 나서는 3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토트넘은 2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지난 시즌 J1리그 우승컵을 차지한 빗셀 고베와 친선전을 치른다. 이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31일 팀 K리그, 8월 3일에는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펼친다.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과 함께 "프리시즌 투어! 출발 (Preseason tour! Let's go♥♥)"이라고 쓴 게시물을 올리며 이번 '아시아 투어'에 기대감을 보였다.

◇팀 K리그 선수 최종 명단(22명) *가나다순
FW : 안데르손(수원FC), 양민혁(강원), 윤도영(대전), 일류첸코(서울), 정재희(포항), 주민규(울산) MF : 세징야(대구), 오베르단(포항), 이동경(김천), 이승우(수원FC), 이탈로(제주), 정호연(광주) DF : 강두지(강원), 박승욱(김천), 박진섭(전북), 완델손(포항), 요니치(인천), 이명재(울산), 최준(서울), 황재원(대구) GK : 조현우(울산), 황인재(포항)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정호연(오른쪽)이 부상으로 빠진 FC서울 기성용을 대신해 팀 K리그 '픽 일레븐'으로 토트넘 홋스퍼 쿠팡플레이 시리즈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시체육회, 복싱 우수선수 육성도장에 현판 수여

광주시체육회가 우수선수를 배출한 복싱종목 육성도장에 '우수선수 육성도장 현판'을 수여했다. 22일 광주시체육회에서 진행된 현판 수여식에는 전갑수 시체육회장, 김영삼 사무처장, 광주시복싱협회 이기홍 회장, 고영삼 전무이사(참석해 복싱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복싱 종목 우수선수 발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복싱협회의 상호 협의에 따라 진행됐다.

현판 수여 도장으로는 지난 5월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선수를 배출한 4개 도장이 선

정됐으며, 이번 제전의 은메달 리스트 이민호(벤틀급)를 발굴한 찰리저 체육관(대표 박지환)이 1호 도장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2호 도장에 웰빙복싱(대표 김희은·사진), 3호 도장에 벤틀급복싱 상무(대표 김정희), 4호 도장에 전일복싱클럽 화정관(대표 황인홍)이 선정돼 현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 앞서 시체육회는 복싱 체육관 관장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장애인펜싱협회, 세종시장배 선수권대회 금빛 활약

금 3·은 2·동 2개 획득

광주장애인펜싱협회 소속 선수들이 '제9회 세종시장배 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선보였다.

시장장애인펜싱협회 선수단은 지난 19-21일 사흘간 세종 세종시체육관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대한장애인펜싱협회와 세종시장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플뢰레·에페·사브르 개인전 ▲사브르 혼성단체전 ▲중·중·고등부 3종목 150여명이 출전했다.

최진우는 남자 사브르A 결승전에서 신지환(대전장애인체육회)에게 15-7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플뢰레A와 에페A에서 3위를 기록하며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용훈과 박현재는 플뢰레와 에페에서 번갈아가며 1, 2위에 올랐다.

윤용훈은 플뢰레C 준결승전에서 최두홍(전북장애인펜싱협회)을 15-6으로 꺾고 결승에서 만난 박현재에 15-13 승을 거둬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에페C 준결승전에서 최두홍을 15-11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지만 박현재에 7-15로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김민권 시휠체어펜싱팀 코치는 "우리 시 선수들이 열심히 한 보상이라 기쁘다. 출전한 모든 선수



광주장애인펜싱협회 소속 선수들이 '제9회 세종시장배 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선보였다. 사진은 광주시 선수단이 경기를 치르는 모습. <광주장애인펜싱협회 제공>

가 입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훈련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제44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종합 3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남에서는 한전KDN의 백경혜(여자 플뢰레A)와 박성철(남자 에페B)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

다.

한편 휠체어 펜싱 선수는 장애 등급에 따라 A등급(절단장애 및 뇌병변 장애), B등급(척추장애 8급 이하), C등급(경추 손상)으로 나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1타 차 준우승' 유해란, 캐나다서 우승 도전

CPKC 여자오픈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 중 최근 가장 매서운 샷을 날리는 유해란(사진)이 이번 주에는 캐나다로 향한다.

유해란은 지난 4개 대회에서 준우승 한번을 포함해 10에 세 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2주 전 메이저 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는 5위, 한국시간 22일 끝난 데이나 오픈에서는 아쉽게 1타 차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LPGA 투어 생애 첫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차지한 유해란은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위해 현지시간 25일부터 나흘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얼 그레이 골프클럽(파72·6709야드)에서 열리는 CPKC 여자오픈에 출전한다.

총상금 260만 달러, 우승 상금 39만 달러가 걸린 이 대회는 여러 명의 한국 선수가 역대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고진영이 2019년, 박성현이 2017년, 유소연이 2014년에 우승했다.

고진영은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서 우승을 다했지만, 연장전에서 메건 강(미국)에게 패해 우승컵을 내줬다.

유해란은 작년 대회에서 공동 41위라는 썩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대회 장소가 캐나다 밴쿠버의 쇼니시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켈거리 얼 그레이 골프클럽으로 옮겨져 새로운 기분으로 대회를 맞는다.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을 앞둔 고진영과 김효주, 양희영은 이번 주 대회에 나서지 않지만, 최혜진, 김세영, 김아림, 신지은, 안나린, 전인지 등 한국 선수 20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오는 8월 열린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 경기에서 각국 대표로 나서는 23명의 선수가 출전해 샷을 점검한다.

부동의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출전하지 않지만 릴리아 부(미국), 이민지(호주), 린시위(중국)를 비롯해 홈 팬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는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나선다.

이 대회에서 2012년과 2013년, 2015년에 우승하는 등 캐나다에서 유독 강세를 펼치는 리디아 고(뉴질랜드)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올해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렉시 톰프슨(미국)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장원석 박일광

2024. 7. 12(금) ~ 8. 11(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